

“작품발표통한 대중교류 필요”

학내 문학창작과 활성화를 위한 제언

글을 쓴다는 작업에 한해줄 매물이라는 것은 어쩌면 말과 글을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이에게 당연하고 있는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오랫동안 특정지식인의 전유물로 이해되어왔던 소위 ‘문학’이라고 불리는 것의 지금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이러한 물음에 지속적으로 활발한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진정한 ‘문학’의 해야하며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이라 하겠다. 본교의 모든 문예활동을 다 살펴볼 수도 알 수도 없지만 그들의 활동을 가능한한 소개, 물론 작품과 전시회·모임 등이 되겠지만·돌아보고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는 데 이글은 의의가 있다. <편집자 주>

발을 했다.

‘천추’는 10년째 활동을 했으며 30여명이라는 비교적 많은 회원들을 확보하고 정기 모임으로 창작물을 발표하고 있다. 게다가 작년에는 대외교류를 마련 매주 시를 바쳐 전시하는 등의 의욕적 활동을 보였다.

한편 교내 문학동아리의 핵심 임을 자처하는 ‘한빛문화회’의

‘한빛문화회’의 ‘한빛사람’ ‘시’ ‘심’과 ‘사랑’의 창작집 ‘천추’의 동인지들을 꼽을 수 있다. 이들 창작물들은 우선 가시적으론 본다면 창작물이 자기만의 속에 그치지 않고 외부의 독자들에게의 만남이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문학이 독자없이 성립할 수 없듯이 창작물의 발표는 문학창작의 의의적 목적성을 띤 그들의 자기소개이자 문학의 사회

적 긍정적이라 하겠다. 또한 천추의 활동도 우선 활발하다는 데 긍정적평가를 매길 수 있겠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러한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모든 경회학과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올바른 대중화를 이루었는가를 재고해 볼 필요가 있겠다.

글을 쓰고 있으며 앞으로는 전

투고들이 요구되며 또한 여러면에서 발표지면을 확보할 필요가 생긴다. 더불어 창작을 원활히 하며 좋은 작품을 내기 위해 학교당국의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 현재 교내에서 공모되는 작품상은 대학주도의 시문학상 공모, 교향의 교향문학상등이 있으나 상금이 그리 높지 않으며, 작품공모수 역시 극히 저조하다. 때문에 교내의 작품이 교외에 우선 투고되는 경우가 많으며·물론 발표는 교내외를 막론한 필요가 없지·그래서 학우들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들이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하지않아 생각된다.

끝으로 이들 창작자들의 좀더 많은 성숙도가 요구된다. 다양하고 많은 작품만이 결코 최선이 될 수는 없다. 대중화에 부합되어야 하는 것은 부연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경회의 문학동아리들의 사실적 기반인 경회학우의 참여와 관심은 그들의 문학적 성장의 밑거름을 이루고 있다. 나아가서는 올바른 대중문화속에서 문학이 갖는 목표달성을 이루어내는 단초를 마련할 것이다.

또한 각 동아리마다 대중속에서 산체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온몸으로 글을 쓰는 열정이 발휘되어야 하겠다. 아울러 학내의 각각의 문예이론들을 수렴해내고 평가하며 올바르게 이끌어갈 지평이 확대되어야 하는 것도 당면과제이다. 사실상 현재의 창작물들을 평가하는 작업은 자체토론과 논의에 국한되어 있다. 이는 결국 문예대중화를 이루지 못한다 그 원인이 있고, 올바른 대중의 지지한 평가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결국 교내 문학창작물의 질적 양적 성숙을 위해 좋은 창작물과 발표공간은 자체문화운동의 중추가 될것이다. <문 화 부>

문화단신

‘대문연’의장 구속

대학생문화예술동맹연합 건준위(이하 대문연)의장인 최형우(서울대·국문4)와 최창(서울대·국문4)씨가 치안본부에 의해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대문연 산하 ‘대문특위’의 평가지정집 제작·배포와 관련하여 지난 12일 연행되었으며 대문연은 이들의 불법적 연행과 구속을 규탄하며 학생문화운동전선의 조직적투쟁을 선언했다.

‘민중 문학의 밤’ 개최

국문과 학생회는 오늘(26)에 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제6회 민중 문학의 밤’을 개최한다. 오전10시에 ‘경회 문학 발표회’를 학술부에서 어학, 교전, 현대문학을 주제로 발표한다. 과노래의 발표와 공연이

있고, 문리대 학생회장의 구속과 극복을 다룬 시극이 있을 예정이며 오봉숙 시인의 ‘작가 자신이 느끼는 작품 세계’에 관하여 강연이 있다.

‘민중문학’ 창립대회

민중문학회의회가 지난 24일 오후 5시에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창립대회와 축하공연을 가졌다.

이 행사에는 ‘노래를 찾는 사람들’ 노동자문화예술동맹 합 음악부와 ‘새벽’ 노동자노래단, 예술림과 전국의 노래패, 정태훈, 안지환, 김철호 등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 회의는 음악문화의 민중적, 민족적,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여 참다운 민족음악화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준비되어 있었다. ‘임정호’ (335-4695), ‘노찾사’ (338-9949)로 하면된다.

신간안내

◇현대사회의 정신사적 기초◇

미국의 사회학자로 저명한 로버트 니스벳의 저작으로 ‘서구의 발전주의 철학이 어떤 내용인가’와 ‘정치권력의 정당성에 관한 문제’에 관한 설득력있는 주제를 우리들에게 던져 주고 있다. 정치와 정당성에 관한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와 개인사이에서 존재하는 중간집단을 인정하지 않고 어떠한 정치사상도 없는 경계에서 한다고 니스벳은 주장하고 있다. <문학부>

지성사 刊·4천원

◇한국 현대인문사◇

한국인문에 대한 변변한 통사 한권 없던 차에 발간된 이 책은 해방 후 정치사, 언론사, 그리고 사회사로 명명되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 현실인문과 권력과의 갈등을 이야기체로 평이하게 해석하며 ‘자유언론의 길’과 언론인 행위규범을 제시하고 있어 교훈과 시사가 풍부 담겨 있는 책이다. <상민사 刊·3천6백원>

나름의 위상 견지하며 의욕적인 활동 전개 다양한 발표공간 활용화 대중화 모색해야

활동은 주목할만하다. 이들은 22명의 회원이 시·소설의 창작부와 연구부 등 세분화된 조직과 정기, 비정기적 모임의 활동으로 그 기세가 자못 드높다. 게다가 지난 20일 집단창작품인 ‘새길에 서서’가 임수경문학상을 받는 등 창작물도 다양하고 다작이라 할 수 있다.

수원캠퍼스의 경우 꾸준한 활

를 들고 자주·민주·통일을 위한 문학작품을 양산한다는 목적으로 출발했으나, 아직 이렇다할 창작성과는 없다. 그외에도 약대 편집부가 ‘경약’이라는 기관지를 통해 창작물을 내고 있다. 대강의 문학동아리의 단편적 모습을 살펴보면 우선 이들의 문학활동이 아직은 무척 활발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들의 창작성과를 살펴본다면 우선

적 책임을 지기려는데 있다. 이러한 공개적 활동을 통해서 사회에의 참여가 현실에서 필요할 시기이다. 그러나, 역시 곱씹어봐야 할 것은 이들 문학인들의 자기정화이다. 예술성과 대중성을 확보하는 단초로서 우선 이들에게 사상적 고리의 고려가 있어야 할 것 같다. 현시기에 자주적 문예운동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고있는 ‘한빛’의 활동은 그런면에서 우

의 모임으로서 문학회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학내독자들에게 이들의 작품이 읽히는 빈도는 극히 낮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그들만의 문학, 그들만의 자족으로 그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물론 이들의 앞으로의 활동에 기대를 걸겠지만, 우선 현재 이들이 처해있는 환경속에서의 철저한 대중화를 실현하는 데에 주축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작품의 발표공간이 대폭확대될 필요가 있다. 학내의 발표공간을 살펴보면 무척 협소하다는 느낌을 갖게된다.

우선 크게는 이들의 작품집과, 대학주보, 교향, 교향광장, V.O.U 등의 언론공간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취급폭이 좁다. 따라서 많은 독자를 확보하는데 무리가 있다. 이들의 공간확보를 위한



어울리고 쉬어갈 수 있는 사랑방

대중과 만나 하나될때 신명나

생활현장에서 건강한 품목의 확산과 지도에 힘쓰고 있으며, 현재는 40여명이 터울림에서 활동 중이다. 열린 공간에서 대중과 만나 ‘우리’로서 하나되었을 때 가장

식을 설명했다. ‘터울림’의 가장 큰 행사는 1년에 한번 대중사업과 연구·창작 활동의 성과물을 모아내어 판과 대중들이제 등을 가지는 정기공연이다. 또한 지난해 ‘꽃다지 1·2’ 등과 같은 연합공연, 노조와 각단체들에 대한 지원공연, 파업중 방문공연등도 항시적으로 해나간다.

지난 노동자 대회에 노동자가 문화운동의 조직원이면서 주체적인 창조자임을 확인했다는 속은경씨는 ‘현재 문화운동에서 느슨해진 모습이 없지 않습니다. 이제는 문화운동도 조직적 훈련을 필요로 하며 사상성과 실천성을 담보해야 합니다.’라며 아담한 터울림의 공간들을 둘러본다. 강습시간이 다가옴에 따라 회

원들을 기다리는 활동가(강사)의 모습에서 터울림의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느껴진다. <株>



◇이 땅 한반도를 울려서 민중들을 일깨운다는 의미를 지닌 ‘터울림’



신명이 난다고 일들을 모으며, 사무국장 송은경씨는 ‘터울림은 ‘돈 두레박’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전·선동에만 치우치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 즉 노동자·농민과 함께 공연하여 대중성을 얻어내는 것이죠’라며 일과 놀이가 결합된 품목특유의 공연양

인터메조

인터메조 (intermezzo)란 연극 가운데 춤이나 마임을 삽입한 것을 의미한다. 이후에 진지한 극(劇)사이의 절박한 극적, 음악적 공연을 의미하였다. 중세 세속극에도 때론 노래·춤·마임들이 내포되었으나 르네상스시대에 들어 그리스·로마연극의 재발견과 아리스토텔레스의 3원칙 이론을 고집하던 인문주의 비평가들의 주장에 따라, 자연히 이러한 비논리적인 삽입부분을 소멸하게 되었다. 사실상 인터메조는 하나의 개별적 예술 양식으로 변모하여 처음에는 음악적 막간극으로 이후 발레·합창 등이 첨부되었으며, 결국에는 바르코시대의 꽃발·행렬등 화려한 공연으로 변모, 정착되기도 하였다. 이탈리아의 몇몇 연극이론가들은 이것을 그리스 배극 코러스(chorus)의 대응이라고 간주하였다. 17세기에는 춤과 무용등 다양한 버라이어티 연예로 발전, 인터메조와 발레·멜로드

이 용수 <무대예술연구회원>

“그런다고 무너질 전대협이 아닙니다.”

전대협은 구국의 강철대오입니다. 의장을 구속시킴으로써 하여 무너질 전대협이라 생각하였다면 착각입니다. 그런다고 무너질 전대협이라면 애초에 만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범죄와의 전쟁이 애국민중들에 대한 탄압을 위해 선포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학사회의 교문봉쇄, 학내진입, 화염병투척자 책임추적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행적들과 송갑석전대협에 대한 연행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를 금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수 없는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강력한 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백만학도의 단결 조직, 구국의 강철대오 전대협이 살아있고 백만학도가 살아있고 백만학도의 애국적 열정이 살아있기에 자신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손으로 ‘전쟁포로’가 된 송갑석 의장을 구해내고 이 땅의 통일과 완전한 민중승리를 위해 나아갈것입니다. 송갑석 전대협에의 즉각적 석방을 원한다./



구국의 강철대오
전국대학생 대표자협의회
새날을 여는 민족자주연군의 선봉
전국대학신문 기자연합회
장기집권 획책으로 내각제개헌 결사반대한다./